

'23도, 정남진으로 진로를 돌려라'

장흥 물축제 오는 28일 개막...올해로 10주년 맞아 지역 정체성·문화적 가치 담아 여름 대표축제 면모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보다 강력한 콘텐츠로 돌아왔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을 배경으로 열리는 물축제는 10주년을 맞아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대한민국 여름 축제의 방향을 바꾸는 의미를 과감히 선보인다.

장흥군은 탐진강의 풍부한 수량과 시원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여름 축제의 방향을 바꾸는 의미를 담아 '23도 정남진으로 진로를 돌려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여름철 탐진강 평균 수온인 23도는 인체가 여름에 시원하게 느끼는 적정 온도로 국내 근해 평균 수온인 27~28도보다 3도 이상 낮다.

개막식은 주무대가 아닌 지상



최대의 물싸움장으로 장소를 바꿔 행사 시작부터 물싸움을 벌이는 등 격식을 버린 행사 진행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물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살수대접 퍼레이드는 남녀

댄스팀의 가세와 지역 주민 참여 행사 시작부터 물싸움을 벌이는 등 격식을 버린 행사 진행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물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살수대접 퍼레이드는 남녀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캠핑장에서는 버스킹과 인문학 토크 콘서트 영화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야밤 도주' 프로그램이 올해 첫 선을 보인다.

탐진강 물축제에서는 매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맨손 물고기 잡기와 수중 줄다리기가 펼쳐진다. 맨손 물고기 잡기는 어종을 다양화 하고 개체수도 늘리는 한편, 잡은 물고기는 즉석에서 얼음 포장해 택배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장흥 고싸움의 전통을 상징하는 수중 줄다리기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 협동, 어울림 등의 의미를 부여해 흥겨운 놀이와 문화 한마당을 표현해 낸다.

이 밖에도 워터슬라이드, 대형 수영장 출발 드림팀, 우든 보트, 수상 자전거, 카누, 팹투라기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올해 물축제는 10주년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물축제에서 한여름 시원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전남도, 국립진도자연휴양림 개장

거북선·남도소리 테마·임회면 굴포리에 조성

전남도는 진도 임회면 굴포리에 조성된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이 11일 개장식을 갖고 14일부터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신원섭 산림청장,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 이동진 진도군수, 유관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2011년 전남도와 진도군이 전남지역 국립림 가운데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다도해 해양 휴양림의 최적으로 발굴해 산림청에 건의해 선정됐다.

산림청은 아름다운 다도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진도가 '명량대첩' 승전지이자 '진도 아리랑'의 근원지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소가 많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동안 8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립진도휴양림을 조성했다.

거북선 모양의 산림문화휴양관 1동 14실, 편육선 모양의 숲속의 집

8동 8실을 비롯해 남도소리 체험관 1동, 방문자 안내센터, 잔디광장, 산책로, 다목적 운동장 등을 갖췄다.

조선시대 무과시험을 재현한 격구·활쏘기 등의 전통놀이와 남도소리 체험, 명량대첩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예약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 (<http://www.huyang.go.kr>)에서 할 수 있다.

김갑섭 권한대행은 "국립진도휴양림 개장으로 '보배섬' 진도에 보배가 하나 더 늘었다"며 "아름다운 다도해를 감상하면서 힐링 휴식을 취하는 전국적 명소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국립진도자연휴양림과 같은 산림휴양시설과 치유숲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지식재산 상담창구 운영

매월 1~2회 1:1 맞춤형 컨설팅 기회 제공

완도군은 지역의 지역재산권 발굴과 재생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한 상담창구를 7월11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차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상담창구는 특허청 지정 지식재산 전문기관인 전남지식재산센터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되며, 완도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의 특허등록,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포상공회의소 산하 전남 지식재산센터에서 올 한해 추진하는 각종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우철 군수는 "지리적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발굴되고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담은 무료이며, 정해진 일정에 맞춰 완도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지식재산 전문가와 현장에서 1:1 맞춤형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전화(완도군 기획예산실 061-550-5031 / 전남지식재산센터 061-242-8587)를 통해 확인·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완도특산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브랜드 개발 및 상표 등록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무안군, 소규모 뚝방 조성으로

발작물 가뭄 해소 도움 '반색'

추경 사업비 확보, 가뭄 극복용 뚝방 98개소 지원

무안군이 최근 이어진 극심한 가뭄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한 100㎡ 규모의 소규모 뚝방이 발작물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농민들이 반색하고 있다.

지속됐던 가뭄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벼는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저수지 다단양수, 관정 개발 및 보수, 용수로 준설 등으로 일부라도 물을 공급했지만, 고추, 콩, 참깨 등 발작물에 대한 용수공급이 어려워 지자 군은 추경에 뚝방 88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3,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총 98개소의 뚝방을 지원했다.

뚝방은 빗물이나 주변 지하수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발작물에

이용하며, 물을 공급할 때는 벼는처럼 흘러 보내지 않고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량의 용수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작은 뚝방이지만 발작물에 물을 공급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가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확대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보겠다"고 밝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뚝방 주변에 펜스 등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고, 뚝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내간판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지역공관 미래창조경제혁신센터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화재' 여수수산물시장 21일 '재개장'

시설복구·이케이드설치 37억2000만원...성금·보험료 투입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해 전소한 전남 여수시 교동 (여수수산물시장)이 현대화 시설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21일 재개장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여수수산물시장은 화재 발생 이후 신속한 재개장을 목표로 잔해물 정리, 응급복구,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보험사 손해사정 등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지난 4월까지 건축물 구조보강공사가 마무리 됐고, 이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됐다.

시설복구에는 각계각층에서 담긴 성금 28억8000만원이 투입됐고, 보험료 등 8억4000만원은 이케이드 설치에 사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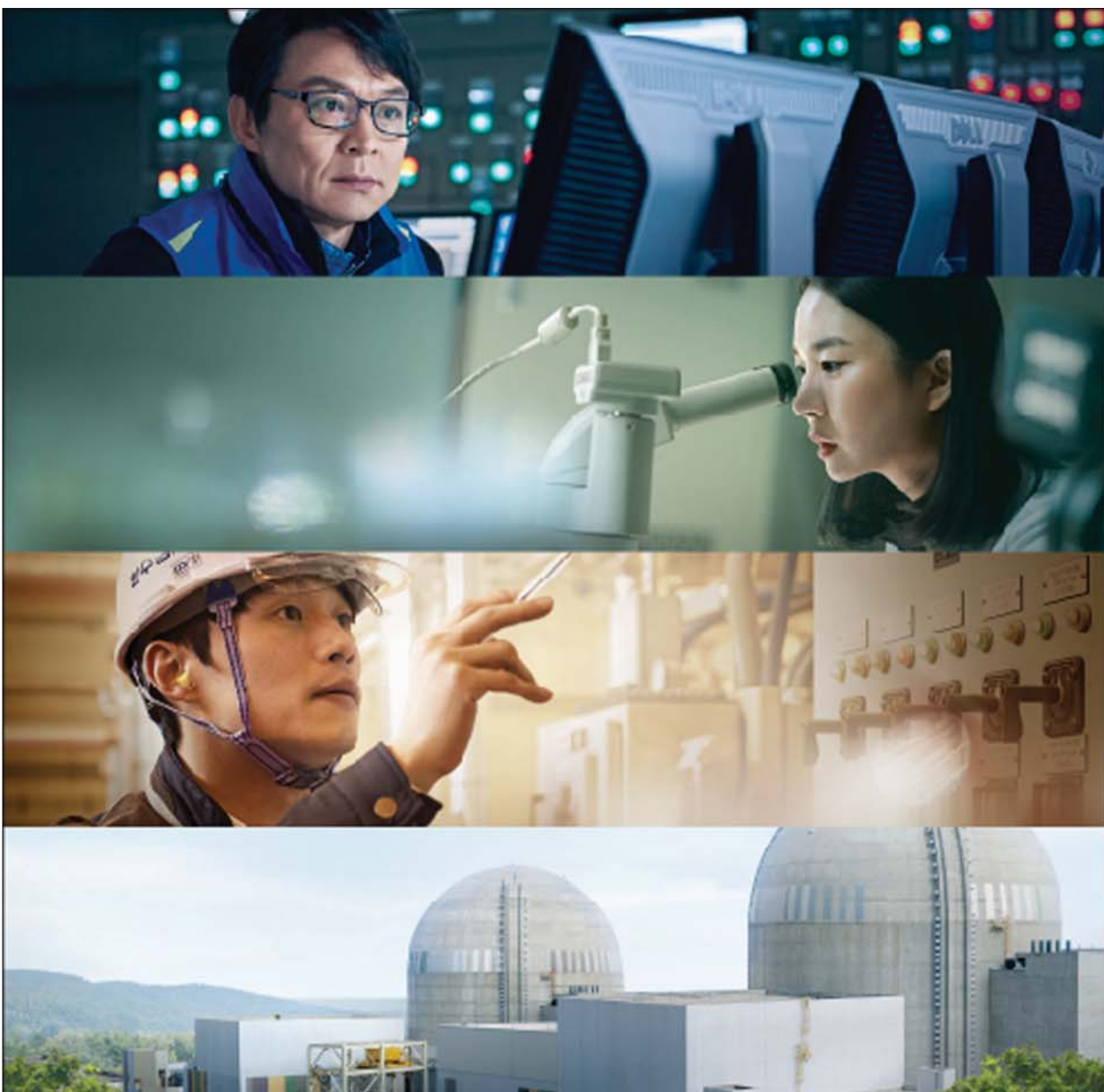
화재 후 시는 시설 복구와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노력도 병행했다. 화재 현장에 화재수습대책 지원본부를 설치했고 인근에 임시판매장을 마련했다.

김삼민 상인회 대표는 "상인들이 제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시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친절한 손님 맞기로 보답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시판매장에서 무더위 등 불편함을 견뎌주신 상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재개장을 기회로 화재의 아픔을 훌훌 털고 여수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길 당부 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